**삼하1408 Note**

**Cross check 민3522-26**

민3522. 그러나 만일 그가 저를 적의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거나, 숨어 기다림이 없이 저에게 어떤 것을 던졌으면,

민3523. 또는 저를 보지 못하고,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돌로써, 그것을 저 위에 던져, 저가 죽고, 또 그의 적도 아니고, 그의 손상[라아: 나쁜,악한,역경,고난,재난,불쾌,걱정,사악한(사람,일),해,무거운,상처,해로운,악을 좋아하는,표시,손해(를 끼치는),비참,슬픈,슬픔,쓰라린,고생,짜증나게 하다,사악한,,잘못된]도 찾지 않았으면,

민3524. 그 경우에는 회중은 살인자와 피의 복수자(되사는자) 사이에서 이들의 규칙(미쉬파트: 판결,언도나 공식적 선언, 사람의 법,율법,정의,권리나 특권,의식,예법,관습,결정,분별,부과금,재판,재판받다,정당한,바르게,정당한 절차,규례)들에 따라 심판할지니라[솨파트:심판하다,판결을 선고하다,정당함을 입증하다,벌주다,지배하다,소송을 제기하다,보복하다,유죄판결한 것,논쟁하다,변호하다,(심판을)실행하다,재판관이 되다,재판하다,논란하다,사사(士師)],

민3525. 그리고 회중은 살인자를 피의 복수자(되사는자)의 손에서 건져낼지며, 또 회중은 그를 그가 달아났던 그의 도피의 성(城)으로 복귀시킬지니라, 그리고 거룩한 기름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제사장의 죽음의 때까지, 그는 그 안에서 거할지니라,

민3526.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가 달아났던 그의 도피의 성(城)의 지경 밖으로 나가고,

민3527. 그리고 피의 복수자(되사는자)가 그를 그의 도피의 성(城)의 지경들 밖에서 발견하고, 피의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이면, 저는 피의 죄책이 없느니라,

민3528.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죽음의 때까지 그의 도피성 안에 남아있어야 하였음이라,

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 후에, 살인자는 그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지니라,